이기는 삶

결단의 리더십 태종 이방원

태종(太宗) 이방원은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의 다섯 번째 아들이다. 태조 이성계의 정권하에서는 사실상 정권을 주도한 정도전과 치열한 정치적 대립을 하였으므로 요즘말로 야당 총재라 할 수 있다. 왕자의 난으로 아버지 이성계를 밀어내고 왕좌에 오른다.

이방원, 그는 결단의 정치인이다. 그는 필요하면 행동했다. 명분이야 나중에 갖다 붙이면 되지만 행동은 그 시기를 놓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결행하는 자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따르는 자가 많았던 것이다. 그가 행동하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해도 그때가 바로 적절한 시기라고 보일 정도였다. 그는 아무리 뛰어난 이상적 철학이나 진보적 정치안도 현실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믿었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한 핵심인물이었다. 손에 피 묻히는 일, 정적을 제거하는 일 등의 궂은일은 그가 다 도맡았다. 골칫덩어리 정몽주를 없앤 것도 그다. 뛰어난 제상 못지않은 실무능력과 학자 못지않은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그는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한 유학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략과 결단력 그리고 수완을 고루 갖춘 리더였다.

역사가들은 조선의 최고의 왕으로 세종이나 정조를 꼽지만 태종 이방원도 그에 못지않은 왕이다. 백성을 힘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학식이 풍부하고 인품이 훌륭했던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세종)을 선택하여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여 조선왕조 오백년(五百年)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사리에 밝은 인물이라고 해도 그 한계는 있기 마련이다. 그 한계 중 치명적인 것이 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유부단(優柔不斷)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은근히 중간노선을 택하는 자는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直視)하지 못하고 개혁(改革)이니 진보(進步)니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이론만 나불거리는 사람보다는 예나 지금이나 작은 일이라도 행동하는 리더를 사람들은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단은 리더의 필수 조건이며 그러한 작은 결단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시점에 정권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원은 정권을 잡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정권을 잡을 수 없는 것이다. 조선 최고의 행동파 경세가(經世家)이자 태조 이성계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가 정도전(鄭道傳)과의 행동과 행동, 결단과 결단, 지략과 지략의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정면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결단력에 있었던 것이다.

삼봉 정도전 그 역시 행동하는 리더였다. 그는 조선의 건국을 설계한 당사자이며 사실상 태조 이성계 정권의 최고의 두뇌였다. 이성계라는 인물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쳐보려고 한 사람이다. 이성계의 절대적인 신임을 업고 조선의 행정, 재정, 병권, 세자교육, 외교까지 온 나라 일을 통틀어 관리하였으며 그 바쁜 와중에도 집필에 힘을 써 조선경국전 등 수많은 저술활동까지 한 그야말로 신이 내린 경세가였다.

정도전은 정치가였으며 뛰어난 군사전략가였고 경제, 과학, 의학 등 다방면의 지식을 겸비하였다. 신권정치(臣權政治)를 꿈꾸었던 정도전은 성품이 유순한 이성계의 여덟 번째 아들인 방석을 세자(世子)로 정했다가 강력한 왕권정치(王權政治)를 구현하고자 했던 이방원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만 것이다. 결국 먼저 결단하고 움직인 이방원이 승리한 것이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가? 계획만 세우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수녀의 요가 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봄이 우리 곁에 살포시 눈으로, 소리로, 맛으로 이미 와 있다. 몸도 겨울잠에서 깨어난 개구리처럼 건강하고 싶다면, 삶의 패러다임부터 바꿔보자! 요가를 통해 자세가 변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변화된다. 올바른 몸을 만들어주는 요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집중력을 길러주고,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 머지않아 부드럽고 유연한 평화 속의 자유로운 몸의 소리를 느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흉추의 가동 범위를 확장

효능: 전신을 부드럽게, 노화방지, 근육을 이완, 신경 밸런스를 잡아주어 척추피로 전신피로 효과적.

동작①: 네발자세로 숨을 내쉬면서 등뼈를 위로 최대한 둥글게 올린다. 머리는 두 팔 사이에 넣고, 턱은 가슴에 당겨 붙인다. 아랫배를 등쪽으로 붙이고, 10초 유지 후 숨을 마시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5회.

척추 기립근 강화

효능: 척추의 움직임과 디스크,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들의 안전성과 허리, 목 디스크 완화, 예방.

동작②: 네발자세로 한쪽 팔과 다리를 엇갈려 들어올려 몸통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코브라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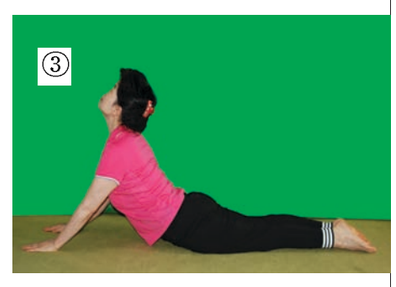
효능: 복근과 앞 목주름 제거, 가슴을 펴주는 자세로 폐 기능 향상, 뒷목 뻐근한 분, 앉아서 일하는 분 등에게 좋은 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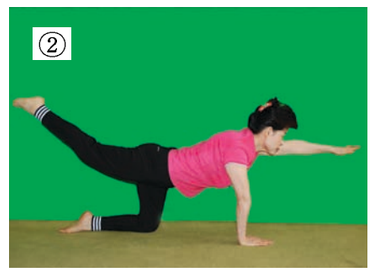
동작③: 엎드린 자세로 다리는 쭉 펴서 모으고 손바닥을 가슴 옆에 댄다. 숨을 마시면서 머리를 들어 상체를 밀어내듯이 서서히 올린다. 시선은 뒤쪽 천장을 바라본다. 10초 유지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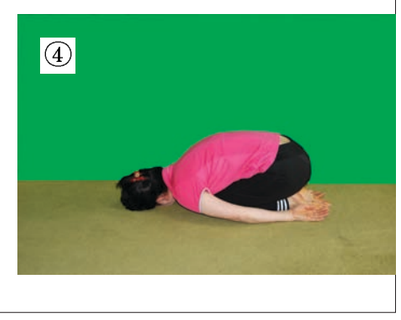
아기자세

효능: 경추, 흉추, 요추 피로 회복, 복부가 가벼워지면 척추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정.

동작④: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숙여 왼쪽 뺨을 바닥에 댄다. 두 팔은 엉덩이 옆에 놓고 긴장을 풀고 편안히 호흡을 한다. 10초 유지 양쪽 각 3회.*







도덕경 해설

治人事天莫若嗇

치인사천막약색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 아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도덕경 59장 해설

세상이 말할 수 없이 각박하고,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 서글픈 불신의 시대다. 이즈음에 사람이 수행을 한다, 신앙을 한다, 또는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여기에는 아무렇게 사는 일반적인 삶과는 분명 차별된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인간 자신과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앎의 탐구에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궁구하여 알아보니,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처지와 입장에 대한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 마음이 성스러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 쉬운 남녀지간의 비뚤어진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욕망과 쾌락을 포장하여 꼬드겨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꾀는 악마와 다를 바 없다.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인간이 지향하여야 할 최고의 가르침과 제일 실천요강으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사랑을 엄밀히 풀이하자면 희생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다. 고통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에게 거기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길이라도 있다면 무슨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벗어나게 하고픈 진솔한 심정이 희생이다. 희생만이 이 세상을 따뜻하고 길이 살아가는 근원적인 힘,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벌써 오래 전에 선각자들은 깨달았던 것이다. 굳이 유불선 거대 종교의 가르침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터득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인생을 달관한 사람들도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 대한 가식 없는 아낌없는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그것이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도와 덕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인 정신적 지주를 담당하는 각 종교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그 근본은 희생(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여기에다 우주 배후의 절대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근원의 성품의 자리도 사랑이다. 대우주심(大宇宙心)의 자리의 사랑이 인간에게는 순수본성이요 참 성품으로 자리하는 것이다. 대우주심과 인간의 마음이 정확히 일치할 때, 인간은 말할 수 없이 성스러워지고, 고결해지며 순수한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 있다. 이것을 각기 양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도가 가정에서 펼쳐지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회에서 펼쳐지면 사회가 편안해지고, 세계적으로 펼쳐진다면 세계 평화가 이룩되게 될 것이다. 우리 인류 앞에 놓인 총체적 문제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해도 이 사랑이 있다면 극복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노자가 우리 후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깊고 오묘한 도리가 다 여기에 있지 않을까?

治人事天莫若嗇(치인사천막약색):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일에 아끼는 것 만한 것이 없다

夫唯嗇是以早服(부유색시이조복): 무릇 아끼는 것이란 빨리 따르는 것이다

早服謂之重積德(조복위지중적덕): 빨리 따른다는 것을 일컬어 덕을 쌓고 쌓는다는 것이다

重積德則無不克(중적덕즉무불극): 덕을 쌓고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無不克則莫知其極(무불극즉막지기극): 극복 못할 것이 없으면 즉, 그 지극함을 다 알 수 없다

莫知其極可以有國(막지기극가이유국): 가히 나랏일에 있어서도 그 지극함을 알 수 없게 된다

有國之母可以長久(유국지모가이장구): 나랏일에 있어서도 어머니(사랑, 우주심)와 같아 길고 오래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是謂深根固柢 (시위심근고저): 이것을 일컬어 뿌리는 깊고 바탕은 단단하다는 것이다

長生久視之道(장생구시지도): 길이 오래토록 살아서 보여 줄 도가 되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중성미자의 변신이라는 대발견

위 제목은 2015년 12월 출간된 과학잡지 〈뉴턴〉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지하에서 불가사의한 소립자를 추적해 새로운 물리학을 개척했다는 것이다. 즉 "소립자 세계의 '유령'에는 질량이 있었다"고 감히 중성미자를 함께 묶어서 유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들 과학자들의 근본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발견하였다는 대상은 여전히 중성미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였다는 사실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영인 중성미자가 변신을 하여 질량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다.

중성미자가 하나님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다음 사항들로 확인할 수 있는데 1999년 6월 29일자 각 일간지의 발표에 의하면 만물의 근원물질인 "중성미자의 인공검출 첫 성공"이라는 놀라운 소식과 함께 나열된 중성미자의 실체들은 다음과 같다. 중성미자는 빛처럼 빠른 가벼운 물질이다, 중성미자는 투과력이 강하다,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지도 않는다, 중성미자는 지구를 관통할 수 있는 소립자이다, 빅뱅 이래 우주의 신비를 푸는 열쇠, 각종 물리현상을 설명한 기존의 표준모델 수정 불가피, 소립자 물리학 재검토 불가피.

물질을 투과하는 힘이 매우 강한 감마선도 납만은 뚫지 못한다. 그런데 중성자에서 나오는 빛은 납의 두께가 100억 광년까지도 뚫고 지나간다고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이원영 박사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긴자께서는 "중성자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며, 생명의 물질이므로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정 뚫고 나간다"고 깨우쳐 주셨다. 중성미자의 위대성이 위와 같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도외시하고 무턱대고 물질을 잘게 쪼개는 일만을 계속한다면, 더구나 하나님의 영을 유령이니, 변신하였다느니 함부로 지껄이는 언론들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크나큰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그토록 중성미자가 질량을 보유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을 잠재울 만한 근거가 있다.

①빛의 소립자(광자)는 질량이 '0'으로 생각되며, 질량이 '0'이라면 빛이 아니라도 광속으로 달릴 수 있다.

②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의 소립자이다.

③중성미자의 질량은 매우 작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불분명하다.

④광속은 불변이고, 광속을 넘는 빛은 있을 수 없다는 상상이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때는 물리학이 새로운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⑤중성미자는 온갖 물질을 쉽게 빠져나간다. 관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중성미자를 '유령입자'라는 별명을 붙였다.

⑥중성미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의 입자다. 따라서 원자핵마저도 빠져나간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성미자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므로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진행을 방해하는 질량이 있다니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몸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31)652-6438
이죽제단 : (031)672-6786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울산제단 : (052)291-1849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2-5455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광주제단 : (062)524-4555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
금마제단 : (063)853-6673
横浜祭壇 : (045)261-6338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関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